

## 1. 회의 개요

- 가. 주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 나. 일시: 2010년 2월 4일 (목) 07:00~09:15
- 다. 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룸(Belle-Vue Room)

## 2. 주 제: “G-20 아젠다와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과제”

## 3. 프로그램

- 사회: 양수길 KOPEC 회장
- o 07:00 - 07:20 조찬환담
- o 07:20 - 07:30 개회사 및 소개
- o 07:30 - 07:50 "새로운 G-20시대, 아·태지역협력기구의 과제"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 o 07:50 - 08:10 “G-20와 아·태금융협력”
  - 신제윤 국제업무정책관리관
- o 08:10 - 08:40 지정토론
  -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 o 08:40 - 09:10 자유토론
- o 09:10 - 09:15 폐회사

## 4. 회의 주요 내용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와 최근 지역공동체에 관한 두 가지 차원의 조명 필요성에 관해 논의함.

2010 다보스포럼의 내용이 소개되었음.

“Rethink, Rebuild and Redesign”이라는 주제 하에 글로벌 금융 위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그 목적이었음. 1월 30일 개최되었던 plenary세션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의 의견이 발표되었음. G20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문제, 동아시아 부상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이런 어려운 과제에 있어 한국이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G20의 발전과정에 관한 소개가 있었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첫째, 경상흑자와 적자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서로 평가를 하는 등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 둘째, 과거 미국 위주의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의 5% 쿼타 이전 문제 해결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제고 및 개혁. 셋째, 미국과 유럽의 주 관심분야인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와 관련된 금융규제 개혁. 넷째, 한국이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이 외에도 과거의 G7 및 G8과 비교하여 달라진 G20역할 등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현시점에서 APEC의 과제로는 ASEAN+3와 G20의 관계에 있어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중심이 되어 G20로부터 ASEAN+3에 전파시키고, 반대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G20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함. APEC은 이러한 논의를 끌어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하고 공론화 시켜야 하는 하이레벨의 역할, 즉 매크로적 역할을, ASEAN+3는 미시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 또한 개도국 지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며 글로벌 협력체와 지역협력체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금융규제를 공론화 시키는 장이 되어야 함. 나아가 APEC, ASEAN+3, G20 이 세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향후 중국의 역할도 G20과 연결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공동체(ASEAN+3)는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향후 지역차원에서 가장 주목받을 협의체 중 하나일 것임. 이것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켜야 하며, ASEAN+3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통해 금융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함. 또한 ASEAN+3든 ASEAN+6든 ASEAN이 허브가 되는 구조를 벗어나 한중일 중심의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리라 봄. 한중일 삼국간의 조율이 없다는 것이 장애가 될 수는 있으나, 금년 4월에는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삼국간의 협력이 기대됨.

□ G20을 통해 한국은 실질적인 노력을 수반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함. 한국의 고유역할을 동반한 가교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의 현실과 가깝고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안전망이나 통화스왑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역내 채권시장의 결제 및 규제에 관해 ASEAN+3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채권 시장 및 금융시장을 가진 한국이 지역적인 사무국이나 국제기구를 조성해서 이해관계 국가들의 협력을 도울 필요가 있음. 한국의 금융시장 발전 사례를 ASEAN 신흥국가에 전파하고 도움을 주며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함. 일단 무엇보다 G20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추가적으로 한국의 G20회의 개최에 있어 북한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